
중간관리자양성과정 역사문화탐방 귀국보고서

<요 약>

- 방문기간 : 2017. 5. 9. ~ 5. 12. (3박4일)
- 방문지역 : 중국 길림성 용정시
- 방문인원 : 28명
- 방문목적
 - 우호교류 도시 방문
 - 항일 유적지 및 백두산 방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 연수목적

- 2017년 중간관리자 양성과정의 역사문화탐방 일정에 따라 우리 구 해외 우호도시인 중국 용정시 방문으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여 양 도시 간 상호발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 항일유적지 방문을 통해 우리 민족의 시련, 일본 침략전쟁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사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방문으로 신비하고 장엄한 산세의 위엄과 기상을 통해 우리 민족정신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연수개요

- 연수지역 : 중국 용정시, 이도백하
- 일 정 : 2017. 5. 9. ~ 5. 12. (3박 4일)
- 대 상 자 : 28명 (홍보미디어실 백○○ 외 27명)

II

연수 일정

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여행일정
5. 9(화) 제1일	인천 연길 용정	KE825 전용차량	09:50 11:15 13:30 14:30 15:30 16:00 17:10	❖ 인천국제공항 출발 ❖ 연길국제공항 도착 ❖ 용정시청 방문 ❖ 일본 간도 총영사관 탐방 ❖ 대성중학교(윤동주 시비) 탐방 ❖ 윤동주 생가 탐방 ❖ 일송정 탐방
5. 10(수) 제2일	이도백하	전용차량	13:00	❖ 백두산 탐방(서파 코스) - 백두산 천지 감상
5. 11(목) 제3일	이도백하	전용차량	09:30	❖ 백두산 탐방(북파 코스) - 장백폭포 탐방 - 백두산 천지 감상
5. 12(금) 제4일	연길 인천	KE826	12:15 15:45	❖ 연길국제공항 출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

III

연수 세부 내용

● 중국 용정시 일반현황

구분	내용
특징	길림성의 현급시(縣級市)
인구	16.7만여명(조선족 67%)
면적	2,208km ²
행정구역	5진 2향 1개 사회구역 / 시청사 소재지 : 용정시 하남가

경제현황	농업중심(약초, 인삼 등)의 산업구조
관광지	항일운동의 본거지인 윤동주 시인의 생가, 대성중학교, 일송정(정자), 해란강, 도문해관, 백두산
국내 우호도시	경기 평택시, 경남 거제시, 광주 북구,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양양군, 충북 음성군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용정시

● 1일차 주요 활동내용

중국 길림성 연길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6년 우리 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용정시로 이동 후 용정시청에서 양 도시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후 만주 한일 탄압의 본거지인 간도일본총영사관과 윤동주 시인 생가, 대성중학교, 일송정을 탐방하였으며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민족이 생활양식을 유지하면서 민족교육과 독립운동 활발히 진행한 역사적 사실들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공직자로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의 필요성도 인식하였다.



용정시청 방문



간도일본총영사관 탐방

	
대성중학교 탐방	
	
윤동주 생가 탐방	일송정 탐방

● 2~3일차 주요 활동내용

백두산 등반로는 총 3가지로(서파, 남파, 북파)가 있으며 2일차에는 서파 코스로 3일차에는 북파 코스로 백두산을 등반하였다. 민족의 영산답게 장엄한 산세의 위엄과 기상을 통해 우리 민족정신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남북분단의 실태를 체감할 수 있었고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백두산 등반 및 천지 감상

● 결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용정시는 비록 중국이라는 국적은 다른 지역이지만 주민들 상당수가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간판과 표지판 등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윤동주 시인의 생가 등 항일 유적지가 있으며 남북분단의 아픔을 체감할 수 있는 백두산과 인접한 지역이다. 이런 민족의 아픔을 간직하고 한민족의 기운이 숨쉬고 있는 용정시와의 우호교류가 조선족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교류는 동북아의 역사왜곡과 남북통일의 시대를 대비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